

제418회국회  
(정기회)

#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8일(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여성가족부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3)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4)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4)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0)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1)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8)
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1)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9)
31.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3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8)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7)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6)
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6)

40.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 상정된 안건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5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5
가. 여성가족부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5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5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	5
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	5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6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1)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6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6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6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6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7)	6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5)	6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6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3)	6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4)	6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6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4)	6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6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0) .....	6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1) .....	6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8) .....	6
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1) .....	6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6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	6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	6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	6
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	7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9) .....	7
3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	7
3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8) .....	7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	7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	7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7) .....	7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 .....	7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	7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6) .....	7
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6) .....	7
40.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	7

---

(16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위원장 이인선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김상욱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노트북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 여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없는 예산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도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새로 선출하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청원 등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한 후 상정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16시07분)

○위원장 이인선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조은희 청원심사소위원장께서 사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석이 된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새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김상욱 간사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양성평등기금

### 나. 청소년육성기금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

## 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11)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1)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7)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5)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3)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4)
1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4)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5)
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0)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51)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58)
2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1)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9)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3)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9)
3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3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8)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84)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7)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8)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3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6)
3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6)
40.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위원장 이인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39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8163억 원으로 금년 대비 929억 원 증가하였으며 정부 지출 대비 약 0.27%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가족,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해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 분야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수당 인상으로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기능을 강화하여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및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늘봄학교 연계 협력 강화로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 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 혐위영상물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해주시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여성가족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상정한 예산안,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한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법률안,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고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차관님 그리고 여성인권진흥원장님, 11월 6일 수요일에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자료가 공개됐지요. 거기서 여가부가 맡은 역할을 보면 원래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성센터가 성범죄 대응센터로 개편돼서 유관기관 실무 협의의 중심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용만 위원**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결국은 여가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이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퍼지는지를 탐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각 부처별로, 정무위도 그렇고 여가위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산 증액을 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가 만들어지는 혹은 그 범죄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원본 데이터 영상물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편집자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내서 그걸 유포를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디성센터에서 목표로 하는, 탐지하고자 하는 그 범죄 과정 중의 단계를 어디로 두고 있나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우선 이미 합성물인 경우와 그다음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이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용만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사후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무위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산소위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지요, 개보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예.

○**김용만 위원** 거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어찌 보면 딥페이크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니까 보면 조금 더 사전적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정보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될 때부터라는 약간의 사전적 단계가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웹 등을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탐지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 기준이었던 사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앞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여가부가 더 이상은 특정 단계를 맡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전적 의미까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결국은 역할을 더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위원님, 우선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착취 유인 정보, 그러니까 사실상 성착취나 온라인 그루밍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인터넷 웹사이트나 채팅앱에서 유인하는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직접 그 앱에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관련해 청소년이 유인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온라인 상담들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것들은 개보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좋고요. 지금은 딥페이크라는 게 결국 아동만을 상대로 하지는 않지요. 지금 보면 각 지자체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기사도 나다 보니까 그런 나이대와 무관하게 조금 더 포괄적인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계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서 이제는 디성센터가 확장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딥페이크 대응에 있어서 그 전에는 사후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전적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범부처적인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 또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실로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도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면서 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현안질의도 하고 법도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전적인 것, 사후적인 것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걸 면밀하게 잘 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어졌으니까 책임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예, 적극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김용만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꼭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가위의 이인선 위원장님, 조은희 위원님, 김상우 위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9월부터 만들어서 세 차례 회의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특히 피해자 지원 이런 부분에서 디성센터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행안위의 경찰 보고를 받으면 디성센터가 이런 범죄의 중심에 서서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가 되고 중앙 전체 부처에서도 이제 디성센터가 그야말로 중심이 되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핵심 기관이 되었습니다. 2018년 처음 생길 때에 비해서 지금 8배가 증가됐는데요.

차관님이나 이사장,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승인해서 넘어온

예산 다 만족합니까? 모자라는 부분 없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역 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 성 범죄도 많지만 전 연령대 유포 불안이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그 인력 지원하려면 디성센터 확장도 해야 되고 인력 지원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한 47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여기 예결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47억 증액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가위가 현장을 방문한 만큼 이 예산은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처음 지적할 때처럼 청소년들이 70% 이상 가해자고 피해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이 그냥 청소년의 일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온라인상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장난삼아 만들었다, 가해자를 잡아 보면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고받기로 예산 한 26억 원을 홍보비로 요청했던데 그 예산 중에 5억 정도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 나머지 한 20억 원이 송출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송출비를 그냥 코바코 정도에 가서 대충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길목에 이 교육비를 써야 된다, 송출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범죄구나, 이렇게 장난치면 큰일 나겠구나, 내 인생 이것 때문에 정말 망치겠구나 할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그라인에 광고비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이 피해나 가해나 이런 상황에 많이 걸려 있는 것 저희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많은 매체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넣어 주신 예산을 그런 효과적인 곳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기존에 그냥 광고비 주듯이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 질의가 가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쓸지 이런 질문 하시는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입니다.

대행님,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4일 유죄 확정판결 받은 것 확인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처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8000만 원을 횡령하고 1억이 넘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하고 여가부 보조금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됐습니다. 확정판결에 4년이 걸렸습니다.

윤 전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전부 챙겨 가고 임기 4년을 꽉 채우셨습니다. 자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전 의원 측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 역시 환수가 전혀 안 된 상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러니 법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착실하게 신청 목적대로 보조금 사용하는 단체들은 뭐가 됩니까, 대행님?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가부가 지난 2월 부정 수령액과 이자를 포함해 90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최초 통보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납부 독촉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도 응하지 않아서 부과된 제재부과금은 또 얼마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1억 6000만 원입니다.

○조은희 위원 1억 6400만 원이지요. 제재부과금까지 반드시 다 환수하십시오.

윤 전 의원이 4년 임기 다 채우자마자 사과도 없이 또 지금 김복동 할머니를 내세워 센터 건립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안무치라고 해도, 이건 그런 말도 아깝습니다. 이런 윤 전 의원에게 ‘얼마나 억울했나. 의심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셨던 이재명 대표님도 사과 대상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4년 전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이용수 할머니께 너무 늦게 상황을 바로잡게 됐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

제재부과금까지 다 환수하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조은희 위원 또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증액 예산이 81억 원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80억 원 정도.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용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증액 반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울 테니까 여가부도 여가위, 예결위원님들께 끝까지 협조 요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산과 함께 꼭 필요한 국제협약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조속한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

님, 김선민 위원님이 우리 여가위에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협약의 핵심은 디지털성범죄 증거를 발견하는 즉시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증거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필요성 절감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동안 이 증거 보전 요청 주체를 경찰이 할지 검찰이 할지를 두고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 내용을 제가 죽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보전 요청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발의된 것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국회 법사위의 조배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여가부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안이 여가부 소관 법령이 아니라고 손놓지 마시고 서영교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들께도 적극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신속한 증거 보전·추적이 어려워서 그간 문제가 됐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인선 여가위원장님과 여가위원들께도 각별히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직무대행께서는 그런 걸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국제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간에 국제공조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필요하면 보고해 주시면서 국제공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약 26억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전국 134개소 정도의 청소년쉼터를 깨끗이 해 주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곳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띄워 봤지만, 화면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저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집보다 열배는 더 예뻐요.

제가 어제 딩가동에 갔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앵두도 그려 줘서 제가 앵두를 간직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 봐. 집보다 더 좋지?’라고 얘기했더니 집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함께 지내고 이러는 공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몇 번을 얘기하는데 저희 방에 와서 보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들어 보지를 못했던 것 같고.

청소년쉼터를 리모델링하거나 좀 좋게 만드는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청소년복지시설 개보수하는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들이 필요한 장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교체하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요, 개보수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서영교 위원 비가 새나 바닥이 뜯어졌나 타일이 깨졌다 이런 것 말고, 그런 건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썩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비, 거기에 최첨단 PC가 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그래야 아이들이 거기서 세계적인 리더로 클 수 있는 꿈도 키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의 초중고에서는 컴퓨터만큼은 최첨단으로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안에다가 헬스장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저희 중학교에는 농구장, 헬스장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헬스장 가려면 돈 드는데.

그런 일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셔서, 제가 예산 올리자고 증액했으니 이것 통과시키도록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집 물 새고 장판 뜯어고치고 냉난방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이 돈으로는 컴퓨터 새 걸로 썩 바꿔 줘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좀 가지고 오시고 통과시키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지금 25년 정부안에 1억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약소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니까 저희 잘 설명드리고……

○서영교 위원 위원님, 정부안이 1억 왔답니다, 1억. 이게 돈입니까, 세금은 다 냈는데. 그렇지요? 같이 해서 한 26억 정도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지자체가 2000만 원 내고 정부에서 2000 줘서 4000으로 좀 예쁘게 해 주자 이렇게 했는데요. 리모델링하고 PC 교체하고 좋은 시설 갖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잘 대응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상정되는 법안 중에 소녀상, 위안부 등 모욕이 계속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모욕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유튜버라고 하는 저런 인간이 소녀상에 가서 볼에 입을 맞추고 온갖 흉측한 짓을 하고, 소녀상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하고 저런 행위들을 하는데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구기에 그리고 저 인간만이 아니라 많은 인간들이, 나쁜 사람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독일, 일본 등등에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모욕을 주고 소녀상이 상징적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그냥 소녀상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징, 우리의 마음을 해코지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통과시켜 내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가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가부하고 위원님들 나중에 12월에 좀 시간되고 하면 중랑구에 있는 딩가동에 우리가 한번 가서 그 근처에서 커피도 마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바로 옆에 어르신 커피숍이 있어요, 유리로 만든 너무 예쁜.

○위원장 이인선 예, 그렇게 한번 가서 눈으로……

저런 예산이 사실은 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대행께서는 은행이나 이런 사회공헌 사업하는 것 좀 찾아서, 이런 청소년쉼터 사업들은 인테리어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폭넓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지금 할까요, 다음 한 칸 넘길까요?

○이연희 위원 한 칸 넘기시지요. 숨 좀 돌리고요.

○위원장 이인선 예, 숨 좀 돌리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신영숙 차관님께 여쭤봅니다.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실 반인륜적 범죄지요. 특히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고 또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 의해 수년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래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물리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심리나 정서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실화나 규모화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피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친족 성폭력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에 4개소의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14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 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런 특별지원 보호시설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이 예산이 4억, 5억 이 정도 됩니다.

○한지아 위원 지금 한 보호시설당 운영비가 연간 6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지요.

그러면 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심리치료와 집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봤더니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불안정하지만 그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봤더니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마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마저도

거의 50%가 삽감이 되었습니다. 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사실은 23년도에는 9억 정도 됐었는데 24년도에 이게 50% 삽감돼서 반영됐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게 기재부였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마 저희가 우선순위에 배정하다 보니까 잘 배정을 못 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상담팀장님 인터뷰를 저희가 발췌했는데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은 예산으로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장 얘기를 보면 그 아이들이 목욕도 가고 놀이공원은 처음이고 생일파티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받았다고 합니다.

PPT 띄워 주셔도 되는데요.

심지어 외식도 처음이라고 해서, 집에서는 쌈장이랑 밥만 먹고 계속 그런 것만 먹었는데 외식을 처음 해 봄에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 안 되는,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4억 5000 정도의 금액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치료 프로그램이 되고 공동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을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삽감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치료 프로그램은 예산이 삽감돼서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확실한 치료 프로그램 신청만으로 보호시설들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600만 원이면 지금 물가로 봤을 때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봄아 될 부분은 아동 보호를 결정하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매뉴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족 성폭력 피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시설이나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고 성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는 다른 기관을 전전하다가, 이 아이들은 굉장히 어리고 아주 여린데 열두 번째가 돼서야 전문성이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특히나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수록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경찰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잘 보호하고 또 적절한 심리치료나 프로그램 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일상의 평온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성인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 예산 그리고 아동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대한 개정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때 국감 이후에 또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기 위해서 유관 부처하고 지금 의견 조율하면서 협의 중입니다.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지난번에, 제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시절에 이 보호시설의 어린이들이 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은 피자나 클라를 마음껏 먹지를 못하고, 먹은 적이 없다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을…… 지금 우선 4개소기는 하지만 너무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국회에서 증액 제기, 요청하셨으면 저희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보통 일반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일반화된 식음료도 잘 못 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예.

○**위원장 이인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시홍덕구 이연희 위원입니다.

차관님, 여성사전시관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국감 때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총사업비 협의가 재정 당국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반영이 됐습니다. 조속히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연희 위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됐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반영이 됐습니다. 11월……

○**이연희 위원** 11월에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반영이 필요합니다. 협의는 끝났고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한 거였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26년에 개관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하여튼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마무리됐으니까 반영이 돼서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기재부하고 업무 협의를 하셨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게 중간에, 그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는 데서 들발 상황이 좀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암반이 좀……

○**이연희 위원**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 이유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해체,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물이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여성사전시관을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암반이 나타났다는 표면적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지금 정부 내에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하고 표류되고 있는데 여성사전시관은 양성

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성권익 증진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 의지를, 암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기를 끄는 것에 대해서 그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기재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아마 해 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예산안에는 실시설계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국회에서 예산…… 저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것 증액안을 요청해 놨는데 결국 국회에서 이것 증액안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증액안을 내면 기재부가 지금 수용할 자세가 돼 있어요, 준비가?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이것 진행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신 건 좀 오해시고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여성계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이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차관님, 제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여성사전시관에 대한 실시설계비 증액 요청을 우리 상임위 예결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서 증액을 반영할 테니까 이게 반영이 되면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잘 협의를 하셔서 이걸 반드시 관철을 시키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반영 취지를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다음으로 저번에 국정감사 때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이 위안부 부정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가 있는 우리 외교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차관님께서는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북한의 이런 권고 목적이 한일 관계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래서 북한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게 아마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좀 혼동해서, 다른 사안하고 혼동해서 그렇게 답변을 좀 한 걸로 나중에……

○이연희 위원 그러면 외교부의 정확한 답변은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그때 혼동해서 답변드린 거 맞고요.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외교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일본의 유엔기구에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고,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대표는 침묵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에게 그런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외교부하고는 잘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연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직접 사죄 뭐 이런 권고안이 있잖아요. 그 사죄에 대해서 외교부하고 지금 여성가족부, 정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사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이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

○이연희 위원 협의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이 질의는 별씨 한 세 번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답변을 한 번도 시원하게 한 적이 없는데.....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걸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서 상호 비난하고 비판을 좀 자제하자라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안에 보면 위안부에 대해서 직접 사죄하라고 돼 있잖아요, 권고안 표현이?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요구해서 일본한테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유엔 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그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아직 협의를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지금 그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전달을 다 했고요. 그런 의견들을.....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 정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셔야지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도 아직 해석도 부처가 서로 합의도 안 해 가지고 논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행 계획에 대해서 잘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뭘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차관님, 제가 시간 지났으니까 유엔 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위안부 직접 사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부의 공식 입장 그 답변을 다음 회의 때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연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사전시관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이 예산 증액을 요청해 주시고 저렇게 적극성을 보여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소속된 쪽에서 그 증액이 반드시 돼서…… 여성사박물관은 사실 여가부 내지는 우리 여성 위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되고 꼭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연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챙겨서 가지고.

지난번 유엔 권고안 같은 것도 외교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지금 답변보다는 조금 진행된 답변을 이연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꼭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자료, 질의 전에……

○위원장 이인선 자료요?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이인선 그렇게 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차관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외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지난번부터 계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여가부의 입장이 뭔지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간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권고와……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보고서 해야 되겠네요. 타임테이블처럼 언제 어떤 논의들을 진행시켜 왔는지를 저희 위원회 전체에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그렇게.

물론 차관님이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온 것도 많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여가부 자체에서 보내는 답변 타임스케줄이 있으면 정리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는 여가부의 입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분명한 입장을 저희가 전달받길 원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이인선 질의 시작할까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차관님, 여가부 사업 중에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이것은 대체로

복권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92%가 복권기금에서 오더라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은 88%가 오는데.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 재원 확대 방안을 좀 마련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재원 확대가 당장 그렇게, 그러니까 재원의 다변화가 좀 필요한데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재원이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 당시에 기재부, 문체부, 법무부 등에 그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가부 관련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당시 기재부차관이 복권기금 재원 배분과 관련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배분구조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가부 사업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도 기재부의 복권기금 재원 배분 관련 검토 과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때 결산 질의 중에 위원님께서 여가부의 예산을 생각해서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하고 적극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복권위원회에 지금 여가부 내에 누가 들어가시지요?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복권위원회에 여가부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차관님이 기재부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법무부도 답변을 했고 문체부장관도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뒤에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추가 증액 요청 많이 해 왔거든요. 정부 예산이 2020년도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 150조 원가량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가부 예산은 그동안 딱 5000억 늘었어요. 여가부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로 치면 정부 예산이 150조 늘 동안에 여가부 예산이 5000억 늘었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25년도 예산안에 보면 국비 100% 사업이었던 폭력피해여성 지원사업 3건이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표면상 이유로는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속내는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없으니까 지자체에도 돈 달라 이런 얘기인데 지방교부세도 지금 제대로 못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지자체 매칭 실집행률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폭력피해여성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지금 매칭된 거는 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이 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차관님께 좀 당부드립니다. 차관님은 실무를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것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직무대행이시잖아요. 장관 공석으로 인해서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거 여가부가 예산 제대로 챙기지 않고 차관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면 여가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밑의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가부의 정책 사업 기관의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에 좀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지적하신 부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복권기금 관련해서 기재위에서도 들여다볼 테니까요 차관님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더 달라는 데는 약간 더 필요한 내역이라는 게 있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가부 자체가 복권위원회에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걸 판단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차관님, 내년은 여성가족부가 두 번째로 여성폭력통계를 발간하는 해입니다. 올해 실태조사 완료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선민 위원** 그런데 2022년에 발간된 첫 번째 여성폭력통계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기존 통계조사 결과의 단순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교제폭력 및 살인에 대한 피해자와加害者 성별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내년도 여성폭력통계는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과 경향성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선민 위원** 최근에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 폭력 사례가 증가해서 기존의 분절적인 법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항목 중복과 표본 부족으로 인해서 통계로서의 가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3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해서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해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진행되는 조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표본을 바탕으로 할지 또 실효성 있는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올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내실 있게 활용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변별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보다 효과적인 폭력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녀상 보호와 관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실시된 정부 차원의 첫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의지 부족과 오류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과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생활 지원과 간병비용 지원 이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 그리고 테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소녀상 테러를 온라인상에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사업과 예산은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테러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다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 등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조사·연구에 해당하는 예산은 3분의 1 이상 삭감됐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가부가 위안부 문제 연구가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기록·연구·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디지털 플랫폼 ‘아카이브814’와 웹진 ‘결’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플랫폼들은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자료 활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대중화 노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폭력통계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예산과 관련된 차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면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많이 잘 활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작년도에 시스템을 개편해서 활용을 잘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걸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안부연구소 행사장에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약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가부의 홍보 예산이 혹시나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 위안부연구소 아카이브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이 좀 살펴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차관님, 지난 국감 때 청소년들이 AI 등 미래기술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친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4차산업체험센터 미래기술 체험관이 국립시설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일정 정도 차관님이 그 뜻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우주센터 하면 우주 영역은 어디입니까? 과기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요, 저희가 우주센터……

○전진숙 위원 아니, 그냥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해양센터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전진숙 위원 미래환경센터, 바이오센터, 생태센터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차관님이 저한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고 그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AI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과학기술정통부, 교육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담당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셔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이 있는 영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I만은 여가부 담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진로·직업 체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AI는 단순히 직업체험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봐 봤어요. 일상에서 느끼고 배우고 실제로 가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에서 스마트홈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곧 발표를 한다고 해요. 피부도 AI 스킨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게 늘어났고요. 글로벌 전체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도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 지능형 로봇 등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심지어 제조업이 요즘에 다 AI 방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전진숙 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근에 SK텔레콤이 CES 2025 최고혁신상을 받았더라고요. AI 기반 모바일 금융사기 탐지·방지 기술인 스캠뱅가드라는 걸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어요, 아직 수상식은 안 했지만는.

이런 것처럼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에서 느끼고 배우면서 늘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프로그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렇게 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마……

○전진숙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은 조금 이따 같이 할게요.

다음 문제는 최근에 여가부에서 지출 구조조정 결과 46억 44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셨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전진숙 위원 제가 별도의 자료로 받아 봤었습니다. 물론 여가부가 지금 현재 적은 재정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끊임없는 증액을 위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몇 가지를 조율을 하셨어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 예산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삭감,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2억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폭력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차관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자체에서 다른 시설에서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국가가 해 줘야 될 것 자자체에게 떠맡기는 방식으로…… 이거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상담하고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 이분들을 다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1억 5000만 원, 아주 적은 소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제가 통계를 내 봤더니 거의 80% 정도만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결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가부나 이런데에서는 100%가 신청할 수 있도록,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복잡함 때문에 못 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동 단위에서라도 찾아서 이들이 신청을 하고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특히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중에 37만 원으로 올렸어요. 2만 원 인상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2만 원을 인상을 하면서, 0~1세에게, 영아에게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 5만 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2만 원 삭감된 상태예요.

전체를 40만 원에 맞추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40만 원이 아니라 지원했던 것 그대로 지원을 하고 2만 원을 추가해서 15만 원에서 37만 원, 0~1세는 5만 원이니까 42만 원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아까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미래기술 체험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자들이 얘기한 것은 지자체하고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전달을……

○전진숙 위원 아니요, 저한테 주신 답변을 보니까 청소년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저 이유로 가지고 왔어요. 청소년이 줄어들었다고 국가가 가져야 될 시설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하여튼 지금 호남권에 기존 국립시설이 2개가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자체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재정 당국하고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와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잖아요. 필요한 예산에 관련해서는 일단 여가부에서는 세우는 거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한 곳을 만들겠다 하면 나중에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순서를 그렇게 밟아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소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

○위원장 이인선 예.

○전진숙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년 한부모 그리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 복지급여 관련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 또한 별도로 저희 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집행률은 제고를 하기는 하는데 워낙 청소년 한부모 인원, 가구가 지금 좀……

○전진숙 위원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설명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집행률에 대한 제고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선 의원실과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차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금 시행 중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서범수 위원 내년에는 소득기준도 완화하고 지원금액 그리고 정부 지원 비율도 높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였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소득기준을 200%,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기준 200% 초과하는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자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액을 좀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지금 수요도 많고 호응이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게 수요에 대한 기대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대기 가구가 많은 것이 좀 고민입니다.

○서범수 위원 아마 22년에 인크루트에서 성인 남녀 기준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다자녀 가구에 도움이 될 정책으로 1번 국가장학금, 두 번째는 주거지원, 세 번째 아이돌봄 서비스가 꼽힐 정도로 상당히 지역에서는, 현장에서는 많이 좋아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대로 현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0% 추가로 지원해서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있는데 이걸 좀 차등화를 둘 수 없는가요? 예를 들면 지금 여가부에서는 다자녀라면 두 자녀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2자녀 이상.

○서범수 위원 그러면 두 자녀 때는 몇 퍼센트, 세 자녀 때는 몇 퍼센트 이걸 좀 차등화를 둘 수 없는가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던데 왜 두 자녀 이상은 딱 획일적으로 해서 다자녀로 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차등화 안 시키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K-패스 환급률도 내년부터는 2자녀에 대해서는 30%, 세 자녀에 대해서는 50%를 하고 있고요. 코레일, 다자녀 가족 어른 KTX 요금 할인도 2자녀는 30%, 세 자녀는 50% 이런 식으로 2자녀 때 그리고 세 자녀 때 나누거든요. 이걸 좀 나누어 가지고 더 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취지는 경제적 부담하고 일·육아 병행하는데 다자녀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한번 역시……

○서범수 위원 당장 내년부터 세 자녀 가구에 대해서…… 세 자녀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세 자녀 이상 한 1만 2000가구……

○서범수 위원 1만 2000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 정도로……

○서범수 위원 그러면 20% 추가 지원할 경우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9억, 2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추가 소요 예산은 한 20억 정도, 만약에 차별화해서 지원.

○서범수 위원 예, 그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은 뭐니까? 올려주면 좋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게 되면 저희는 취지에……

○서범수 위원 그런데 왜 올려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은희 위원 여가위는 도와주는 분이 많아서 좋아요.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지금 서비스 받으려면 얼마나 대기를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한 달 정도……

○서범수 위원 한 달 정도요. 20년에는 8.3일 정도인데 23년에는 한 33일 정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되면 아이돌보미 이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한 2만 8000명 계신데 공급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교육기관도 많이 늘리고 교육과정들도 유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범수 위원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이돌보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요?

○서범수 위원 일하고 싶은 분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중에 50대 이상이 한 반 정도 되고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층이 좀 있으신……

○서범수 위원 그런데 활동수당이 시간당 1만 590원 그 정도……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서범수 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 최저임금 갓 넘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아이돌보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내지는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분들에게만 자원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서 인건비 라든가 또 공급기관의 운영비 수준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건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오늘 제가 두 가지 점을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요즘 사업 중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돌봄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증액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돌보미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가야지, 애도 좋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서범수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예산과 사람을 훈련하는 일에 조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서범수 위원님이 해 주신다 하니까 책임지고—이리로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제가 도와드린다 했지.

○위원장 이인선 다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차관님, 최근 교제 관계였던 연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교제살인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남희 위원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여성 피해자 살인사건 764건 중 살해 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등 피해가 선행되었던 사건이 147건이고요 전체 살인 중 20%가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이렇게 통계를 집계하기는 했지만 피해 유형별로 과거 신고 이력이나 경찰 대응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아서 피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친밀한 관계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된 여성 실태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살해는 작년에 최소 138건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하면 449건에 이릅니다.

차관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통계 집계 가능하도록 법원과 협력 근거 법안도 마련되었는데요. 여성폭력 사망사건 조사·분석 필요하고요 실효성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동의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메우기 위해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추가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고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올해 24억 58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안은 22억 31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줄었는데요.

차관님, 지금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범죄와 같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가 국정과제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도 교제폭력까지 추가해서 늘어났는데 예산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이 없어서 예산 못 챙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김남희 위원** 관련 예산 확실히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비수급자 생계비 단가가 28만 6700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단가가 33만 원대예요. 이보다 낮은 금액이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낮은 게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피해자 보호시설의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서 탈출하신 분들이니까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생계비 지원을 하는 건데 수급자 지원단가에도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피해자와 동반 자녀 식비 등으로 쓰이는 가장 필수적인 예산인데 이것을 최저보장수준 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35만 원대로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도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의 자립은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소 시 자립지원금 예산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들의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퇴소자 수 대비해서 자립지원금 받는 비율이 15% 수준이고요. 올해 4분기에 자립지원금 예산이 소진돼서 신청조차 못 하거나 지원이 어렵다라고 얘기 들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책무인데 예산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죄피해자 보호하고 인권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정폭력·스토킹폭력 피해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원래 국비 100%였다가 지방비 30% 매칭으로 중앙정부 부담을 줄였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정부는 지방교부금도 깎여 가지고 예산 부족해서 아우성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비 매칭으로 돌리면 예산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피해자 지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국비에서 지방비 매칭으로 이렇게 뺏겼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적하신 대로 지방 쪽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선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것은 누구나 사업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별이 생길 수도 있고,实은 이 부분은 지방비 매칭으로 가면 안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7 대 3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점검해 보시고 기재부 쪽으로, 기재위 쪽으로 해서……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은 조금은 어렵고, 사실은 지자체가 약하면 배분이 낮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똑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전체를 보시고 김남희 위원님한테도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에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차관님, 작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356억 원인 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올해 9월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의 몇 % 정도 쓴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10월까지 집행 88%, 실집행률은 63%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요? 실집행률이 제가 받은 건 9월까지 56.8%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중요한데 돈을 다 못 쓰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또 많이 늘려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청자들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기를 오래 한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공급자하고

수요자 간의 매칭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이런 것을 구축하셨어요. 138억 정도 투입해서 개발하셨고 내년도 1년 운영비만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역마다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공을 하지요. 지역마다 편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부모들이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 얼마나 대기하는지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야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부모들이 월별 얼마나 신청하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답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시스템이 없어서 광역지원센터에다가 문의하고 거기서 다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공문 보내서 이렇게 역으로 받아 내면 한 달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기다렸는데.

또 이게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특정 시간대에 몰릴 수 있잖아요, 방과 후에. 그래서 시간대별로 얼마나 요청을 하는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30분 단위 자료는 통계가 없답니다. 추출이 불가하답니다. 그런데 차관님, 서비스 30분 단위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30분 단위로 신청하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가 없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까 차관님도 답변하셨는데 평균 대기 기간이 33일이지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훨씬 더 기다리는데 왜 33일밖에 안 되나?’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여가부 통계는 신청을 한 다음에 실제로 연결된 그 사람들의 대기기간 평균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만 3000여 가구가 여전히 대기 중이에요. 이분들은 한 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년을 기다려도 통계에 안 잡혀요. 그다음에 한 5개월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고 민간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통계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33일 기다렸다고 하지만 실제 부모들은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기다렸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 통계를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이돌보미를 많이 육성을 하는데 계속 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근로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비 매칭 말고 추가적으로 지자체별로 쳐우를 위해서 더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고 싶어서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역시 여가부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예산과 불용액 달라고 하니까 여전히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4665억 원인데 9월까지 집행된 게 2654억 원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 추세로 가면 실집행률이 75%고 1139억 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남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아이돌보미 숫자가 1년 동안 오히려 100명 감소했어요. 지금 2만 7000명인데 내년도에 3만 6000명을 전제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난 몇 년간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쳐우 여건을 완벽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갑자기 2만 7000명이 3만 6000명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예산만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우려되는데 결국 예산 늘려서 어떻게 쓰겠느냐? 수혜 대상을 늘리셨더라고요. 그전에는 중위소득 150%까지 수혜 대상이었는데 200%까지로 늘렸어요. 저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육비 대지급제 할 때 정부는 100%로 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는 소득 기준 없이 다 지급하거나 최소 200%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100%를 고집했어요. 그런데 여야 위원들이 합의해서 결국 150%로 했는데 정부는 다른 예산, 양육비 같은 경우는 소진이 안 되니까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저는 지원 대상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양육비 대지급 때 요청했던 금액 늘리는 것 한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대략 1100억 정도 남는 이런 식으로 정작 중요한 것을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그때그때 지원 대상도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소위 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하는 것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가부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올 12월까지 과연 올해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이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내년도에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의사진행발언 듣고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아이돌보미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서 23년 4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 이게 지금 미스매칭이 되는 것은 통합시스템이 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아이돌보미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급의 질이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안소위를 빨리 열도록 해 주셔서, 국가자격증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거든요. 아직 여가위에서 법안소위를 안 여는데 이 문제만큼은 좀 시급하니까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한규 위원이 지적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예산소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반드시 통계자료나 이것을 면밀하게 넘겨 주지 않으면 증액을 한다는 건 어렵고 또 반대로 오늘 법안하고 다 왔으니까 법안소위 해서 빠르게 일자리 미스매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고 일단 예산소위에 그런 전체가 매칭이 잘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김한규 위원님, 한번 그 전체를 따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마는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욱 위원** 웬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짧게 몇 가지 점검만 하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6억 증액 요청하신 것 맞지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주원** 예.

○ **김상욱 위원** 그중에 양육비 선지급금 관련해서 추가 금액을 좀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8억 정도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산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주원** 저희가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유보된 금액이 5억 정도가 되고요. 25% 늘어난 걸로 추산을 했을 때 내년 25년 6월경 그때 한 12억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 총액이 17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지급제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중복 예산인 것이 아니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중복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상욱 위원** 그리고 지금 이행관리원 변호사 처우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안 좋지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주원** 예,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처우의 53% 정도에 불과합니다.

○ **김상욱 위원** 53%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주원** 연봉 3700 정도 됩니다.

○ **김상욱 위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연봉 3700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주원** 예, 맞습니다.

○ **김상욱 위원** 그리고 또 선지급제 도입에 따라서 계약직 임기제 변호사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5억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데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구조화시킬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선지급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이걸 집행하기 위한 예산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주원** 예.

○ **김상욱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분께 들어가는 돈과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건데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혜택은 많이 가게 하는 것이 정부 기능의 효율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처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변호사들이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민사, 부동산, 형사 막 넘나드는 업무는 아니고 가사에 한정적인 업무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소장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복잡한 소장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소장이 반복적으로 수백 개가 나오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건수가 많다 해서 일이 많다가 아니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의 업무와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송 1건을 하고 그 1건이 끝나면 손을 뗅니다. 그런데 양육비 행관리원에서는 소송 1건뿐 아니라 그 소송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실은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 강도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업무 강도입니다.

○김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혜자들에게 많이 가야 하는데 수혜자들에게 가는 중에 배달 비용으로 다 소모가 돼 버리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점검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께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예산 필요하다,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출내역도 확인을 했고요. 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지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찰 와서 보셨겠지만 현재적 수준에서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업무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실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이랄지 딥페이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력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동시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효율성을 좀 올렸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인력을 많이 늘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하고 중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김용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인선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잠깐 있나 봐요?

○김용만 위원 예, 30초만.

방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연결해서 디성센터가 중앙 디지털성범죄대응 센터로 커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관련해서 13.5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 말고도 증액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저도 예산소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부처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그 내용까지도 한번 산출해 봐 주셔서 예산소위에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1분만 질문 좀 잠깐……

○위원장 이인선 서영교 위원님, 1분 말씀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디성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제가 법사위에서…… 사실은 법사위가 많이 바꿨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을 지난번에도 바꿨고 다 못 해서 이번에는 삭제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해서 세 번에 한 번씩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삭제권을 경찰이 가져야 된다, 삭제 요청해라고 하는 것까지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방심위를 통한 삭제가 훨씬 빠릅니다라고 경찰이 얘기하던데 자료를 보니까 방심위를 통한 삭제가, 올해 8월에 5만 건이었으면 삭제가 3건밖에 안 됐더라고요. 5만 건의 요청이 있으면 삭제는 3건이고 차단이 5만 건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디성센터도 마찬가지로 차단인 겁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아니요, 저희는……

○서영교 위원 국내는 삭제고, 방심위도 국내는 삭제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란 유포 그런 사이트들 다 외국에 있잖아요, 거의 다. 그것은 삭제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국외 사이트는 국내 법망을 피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 디성센터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국외 불법사이트에 유포되는 촬영물 자체를 삭제하도록 그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차단을 하더라도 우회접속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 자체에 유포되어 있는 것의 삭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저희 디성센터의 역할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국외 사업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법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들과 연계 협력을 해서 유포된 촬영물들을 플랫폼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삭제되지 않고 차단만 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언제나 놀릴 수 있고 그걸 또 다른 형태로 띄울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경찰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막 떠드니까 이렇게 일을 하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 마찬가지로 디성센터도 국내만 삭제하고 있는 상태, 디성센터가 훨씬 더 많이 삭제하던데 국내만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전체가 다 나서서 외국 거를 삭제할 수 있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인터폴이든 뭐든 외국과의 협력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한 게 눈앞에 안 보이는, 잡시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법사위 하면서 알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전체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선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전체적으로 사실은 곁만 돌다가 숨어 있다가 다시 또 독버섯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9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40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는 임미애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서면질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상임위에서 활동을 마치시고 겸직 우리 상임위에 와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보여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영숙 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같이 배석한 공공기관장께서도 오늘 질의를 잘 보시고 예결소위에 가서 답변하시고 본 예결위의 소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딥페이크 예방, 청소년 보호, 돌봄, 일자리, 폭력피해 예방, 피해자지원, 다양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기 때문에 오늘 배석하신 분들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 ○출석 위원(17인)

김남근 김남희 김상욱 김선민 김용만 김한규 백승아 서범수 서영교 이달희  
이연희 이인선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조은희 한지아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정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대변인 김가로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윤세진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가족정책관 최성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김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주원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6)

이상 2건 9월 23일 회부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6)

9월 24일 회부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4.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4)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9)

이상 2건 10월 7일 회부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8.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8.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7)

이상 2건 10월 10일 회부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10월 11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4.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10월 15일 회부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이상 2건 10월 17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9)

이상 3건 10월 29일 회부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5)

10월 30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8)

11월 7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6)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11.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8)

이상 2건 11월 12일 회부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3)

11월 15일 회부됨

○관련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1)

10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4)

이상 2건 1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 청원 회부

###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2024. 10. 1. 류가연 외 52,5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5)

10월 2일 회부됨

###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2024. 11. 5. 백선영 외 50,1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1)

11월 5일 회부됨

## ○ 행정입법 제출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3490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9. 20.	시행령
제34904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9. 20.	시행령
제3495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10. 22.	시행령
제20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 9. 23.	시행규칙
제20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 9. 30.	시행규칙
제209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 9. 27.	시행규칙

## ○ 보고서 제출

### 2024회계연도 3분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명세서

(2024. 10. 18. 여성가족부 제출)